

清華簡『芮良夫毖』의 문헌학적 가치 고찰

김정남*

<目 次>

1. 들어가며
2. 清華簡『芮良夫毖』 개요 및 연구 종술
 - 1) 清華簡『芮良夫毖』 解題
 - 2) 清華簡『芮良夫毖』 선행연구 종술
3. 清華簡『芮良夫毖』의 형식과 내용의 특징
 - 1) 전래문헌 비교를 통한 '毖'의 표현상 특징
 - 2) 운문과 산문의 관점에서 본 '毖'
 - 3) 『尙書』와 『詩經』을 중심으로 본 문헌 귀속 문제
4. 결론

1. 들어가며

197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발굴 및 정리되고 있는 각종 출토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전적(典籍)류 자료이며, 다른 하나는 문서(文書)류 자료이다. 문서류 자료는 시기별 행정 문서 및 법률 조항을 기록한 자료인데 대표적으로 睡虎地秦簡, 岳麓秦簡, 包山楚簡 司法文書 등이 있다. 전적류 자료는 종류가 상당히 많다. 한서 예문지의 분류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모두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전적류 자료는 주로 清華簡, 郭店楚簡, 上博楚簡이며 역사서나 제자백가 및 경전관련 자료가 대다수이다. 이 자료는 대다수가 역사적 사실과 인물간의 대화를 기록하거나 道, 禮, 法, 性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설명한다. 따라서 산문과 운문을 기준으로 본다면 산문으로 구성된 자료가 절대

*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시간강사

다수를 차지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발굴 정리된 자료 중 산문이 아닌 운문으로 구성된 전적 자료도 있다. 산문 형식을 토대로 대화 내용이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운문체로 구성했거나 자료 전체를 시가(詩歌)로만 구성한 것이다. 시가로 구성된 자료의 성격에 대해 연구자에 따라 의견이 조금 다르다. 하지만 漢代 이후에 편찬된 전래본 『詩經』의 원시 형태로 간주하는데 이견의 여지는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시가류(詩歌類) 출토 자료는 모두 4가지이다. 바로 清華簡 『耆夜』, 『周公之琴舞』, 『芮良夫毖』와 上博楚簡 『逸詩』이다. 이 중에서도 清華簡 『芮良夫毖』에 수록된 2편의 '비(毖)'는 전래본 『詩經』에 수록된 시와 형식상 차이가 있다. 운율 및 후렴구가 엄격하지 않으며 개인적 감정 묘사보다는 훈계, 대의 명분 등을 강조한다. 형식은 운문체 성격이 강하나 내용은 『尙書』의 “주고(周誥)”와 유사하다. 또한 『芮良夫毖』와 비슷한 주제를 가진 자료가 『詩經』 「桑柔」와 『逸周書』 「芮良夫」이다. 이 두 편은 예량부가 려왕(厲王)에게 간언하는 내용이지만 각각 운문과 산문으로 구성되었다. 같은 주제로 다양한 문체 구성 방식을 보여주는 자료는 현재까지 전래본에서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자료의 성격을 두고 다양한 견해가 제시됐다.

본고에서는 清華簡 『芮良夫毖』가 지닌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이 자료가 지닌 문헌학적 가치를 밝히고자 한다.

2. 清華簡 『芮良夫毖』 개요 및 연구 종술

1) 清華簡 『芮良夫毖』 解題

清華簡 『芮良夫毖』는 모두 28매이며 가장 긴 죽간은 44.7cm이다. 파손되지 않은 죽간에 일반적으로 30자 정도 쓰여 있다. 첫 번째 죽간 뒷면에 “周公之頌志”

라는 필적이 있으나 칼로 지운 흔적이 있으며 “芮良夫毖”는 정리 과정에서 새로 만든 제목이다. 13, 14, 17호간이 보존 상태가 좋지 못하며 12, 16, 27, 28호간은 편철(編綴)을 통해 일부 복원이 되었으나 3~4자 정도는 확인할 수가 없다.

『芮良夫毖』는 서주(西周) 말기의 문헌으로 추정하며, 려왕의 대부인 예량부가 운문 형식으로 당시의 시대상을 설명하면서 지배층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逸周書』, 『史記』, 『國語』 등에 예량부의 간언을 확인할 수 있다. 清華簡『芮良夫毖』 역시 이와 비슷한 논지로 간언하고 있으나 형식상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毖’라는 운문체이다. 2005년에 발견된 산시성(陝西省) 한청(韓城)시 량띠이(梁帶)촌에서 발견된 예국(芮國)의 묘분에서 편종(編鐘)과 편경(編磬) 등의 악기가 발굴됐는데, 악기 형태나 조합 등이 중원지역에서 발견된 주왕조의 악기와 기본적으로 일치했다. 이것은 예량부가 지은 시가 주 왕조 예악(禮樂)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 있으며 운문 형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점을 증명해준다.¹⁾

清華簡『芮良夫毖』의 내용 전개를 살펴보면, 1~2호간의 “芮良夫乃作毖再終曰”까지 시대적 배경과 예량부(芮良夫)가 ‘毖’를 지은 동기를 밝히고 있다.²⁾ 2호간 ‘曰’ 이후로 첫 번째 ‘毖’가 시작되며 15호간 “二啓曰” 이후로 두 번째 ‘毖’가 시작된다. 첫 번째는 예량부가 은의 멸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선왕의 덕행을 토대로 현자(賢者)를 등용하고 간언을 받아들여야 하며, 탐욕을 경계하고 법도를 정비하며 덕행을 통해서 국가의 혼란을 극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³⁾ 두 번째 시

1) 方建軍, 「新出芮國樂器及其意義」, 『音樂研究』 2008年 第4期, 北京, 人民音樂出版社, 2008年, 34~39쪽.

2) 周邦驟有禍, 寇戎方旃. 厥辟御事, 各營其身. 恒靜爭于富, 莫治庶難, 莫卹邦之不寧. 芮良夫乃作毖再終曰. (주나라에 재앙이 누차 발생하고 외적과의 전쟁도 잦아졌다. 제후와 대신(御事)들 각자 자신만을 챙기며 항상 부를 두고 다투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전혀 다스릴 수 없고 나라가 불안한 상황을 조금도 근심하지 않았다. 예량부가 이에 毖 2수를 지었는데 이 르기를)

3) 敬之哉, 君子! 天猶畏矣. 敬哉君子! 寤敗改由. 恭天之威, 載聽民之由. 間隔若否, 以自營噴, 由求聖人, 以申爾謀猷. 毋羞聞由, 度母有咎, 毋婪貪悻悻. 滿盈康戲, 而不知寤告. 此心目無極, 富而無況. 用能止欲, 而莫肯齊好. 尙恆恆敬哉! 顧彼後復, 君子而受諫. 萬民之咎, 所而弗敬, 譬之若重載以行崎險, 莫之扶導, 其由不攝傾? 敬哉君子, 恪哉, 毋荒. 畏天之降災, 卹邦之不臧. 毋自縱于逸, 以救不圖難. 變改常術, 而無有紀綱. 此德刑不齊, 夫民用憂惕. 民之賤矣, 而誰適爲王? 彼人不敬, 不鑒于夏商. 心之憂矣, 靡所告懷. 兄弟愚矣, 恐不和順. 屯圓滿溢, 日余未均. 凡百君子, 及爾盡臣, 胥收胥由, 胥穀胥均. 民不日幸, 尙憂思. 繫先人有言, 則威虐之.

는 포상과 형벌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역설하는데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위한 법제도를 확립해야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했다.⁴⁾ 첫 번째 내용은 국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거시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두 번째 내용에서는 그보다 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전래문헌에서 볼 수 없었던 형식으로 전체적인 요지는 『상서(尙書)』에 포함된 “주고(周誥)”와 비슷하나 형식은 운문체이다. 淸華簡 『耆夜』, 『周公之琴舞』 역시 『芮良夫毖』처럼 시가를 수록한 문헌인데 특히 『耆夜』는 『芮良夫毖』와 마찬가지로 첫 부분에 저술 배경과 동기를 밝히고 운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논지를 전개한다. 전래문헌 『尙書』, 『詩經』을 기준으로 하면 이와 같은 문헌은 어느 한 쪽으로 구분 짓기 어렵다. 하지만 한대(漢代) 유교화 정책 이전에 『尙書』, 『詩經』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헌 형태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단서로 평가받고 있다.⁵⁾

或因斬柯，不遠其則。毋害天常，各當爾德。寇戎方晉，謀猷惟戒。和搏同心，毋有相勒。徇求有才，聖智勇力。必探其宅，以親其狀。身與之語，以求其上。昔在先王，既有衆庸。□□庶難，用建其邦。平和庶民，莫敢戾。□□□□。□用協保，罔有怨誦。恒爭獻其力，威變方難。先君以多功。古□□□，□□□□。□□元君，用有聖政德。以力及作，變仇啓國。以武及勇，衛相社稷。懷慈幼弱，羸顧脛獨。萬民俱愁，邦用昌熾。

- 4) 二啟曰，天猷畏矣，豫命無成。生□□難，不秉純德，其度用失管。莫好安情，于何有靜？莫稱厥位，而不知允盈。莫□□□，□□□□型。自起殘虐，邦用不寧。凡惟君子，尙鑒于先舊。道瀆善敗，卑匡以戒。□□功績，恭享祀。和德定刑，正百有司。胥訓胥教，胥胥謀。各圖厥永，以交罔謀。天之所壞，莫之能支。天之所支，亦不可壞。板板其無成，用匡何威？德刑怠惰，民所妖訛。約結繩準，民之關閉。如關棧局鍵，繩準既政而五相柔比，適易兇心。研甄嘉惟，料和庶民。政令德刑，各有常次。邦其康寧，不逢庶難。年穀紛成，風雨時至。此惟天所建，惟四方所祇畏。曰其罰時當，其德刑宜利。如關棧不閉，而繩準失揆。五相不彊，罔肯獻言。人頌扞違，民乃即教。靡所屏依。日月星辰，用亂進退，而莫得其次。歲乃不度，民用戾盡，咎何其如台哉！朕惟冲人，則如禾之有稂。非穀哲人，吾靡所援□詣。我之不言，則畏天之發機。我其言矣，則者不美。民亦有言曰，謀無小大，而器不在利，屯可與願，而鮮可與惟。曰嗚呼畏哉！言深于淵，莫之能測。民多艱難，我心不快。戾之不□□，無父母能生，無君不能生。吾中心念結，莫我或聽。吾恐罪□身，我之不□。□□是失，而邦受其不寧。吾用作毖再終，以寓命達聽。

- 5)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는 趙平安의 『『芮良夫毖』初讀』(『文物』2012年 第8期, 北京, 文物出版社, 2012年), 李學勤, 『新整理淸華簡六種概述』(『文物』2012年 第8期, 北京, 文物出版社, 2012年), 高中華·姚小鷗의 『論淸華簡『芮良夫毖』的文本性質』(『中州學刊』229號, 鄭州, 河南省社會科學院, 2016年), 馬芳의 『從淸華簡『芮良夫毖』看“毖”詩及其體式特點』(『江海學刊』2015年 4期, 南京, 江蘇省社會科學院, 2015年)이 있다.

2) 清華簡『芮良夫毖』 선행연구 종합

『尙書』와 『詩經』의 특징을 동시에 가진 清華簡『芮良夫毖』는 2012년 공개된 이후부터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한 연구자는 리쉐친(李學勤)과 자오핑안(趙平安)이다. 리쉐친은 『芮良夫毖』가 “타이르고 주의를 주는(儆戒)” 시로 음악, 무용과는 무관하며 정치를 비판하는 “정치시(政治詩)”라고 했다.⁶⁾ 따라서 이 문헌을 『詩經』류 문헌과 관련 있다고 간주했다. 『芮良夫毖』의 정리자인 자오핑안⁷⁾은 『芮良夫毖』 1호간과 2호간에서 『芮良夫毖』가 편찬된 동기 및 시대적 배경이 제시된 점에 주목했다. 이와 같은 구성 방식이 『尙書』의 “周書”에서 편찬 동기 및 배경이 먼저 제시되고 신하의 간언이나 군주의 연설이 그 다음으로 구성되는 것과 일치한다고 보고 『芮良夫毖』를 『尙書』류 문헌으로 분류했다. 천평위(陳鵬宇)는 언어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芮良夫毖』에 쓰인 어휘를 시류(詩類)와 비시류(非詩類)로 구분하고 운문(韻文) 형식으로 구성됐지만 시가(詩歌)에 사용하는 어휘와는 많이 다르다고 했다. 따라서 『芮良夫毖』는 지금의 표주(表奏)와 비슷하며 『尙書』류 문헌에 속한다고 했다.

야오시아오어우(姚小鷗)는 자오핑안이 주목한 부분을 선진시기 “시서(詩序)”로 간주하고 『毛詩序』의 “소서(小序)”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을 “『芮良夫毖』「小序」”로 명명하였다.⁸⁾ 리쉐친과 마찬가지로 음악과는 무관하다고 보았다. 마난(馬楠)은 『芮良夫毖』와 『詩經』 “大雅”에 속하는 작품 간에 유사한 구절이 많다고 했다.⁹⁾ 마팡(馬芳) 역시 『詩經』 “大雅”, “頌”에 속한 「小毖」, 「抑」 등과 유사한 문헌으로 보고 마땅히 『詩經』류 문헌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전래본 『詩經』에 수록된 시가보다도 ‘毖’의 특징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했다. 첫 번째로 ‘毖’는 이치를 논하는데 유리하며, 두 번째로 표현 수법 중 ‘賦’를 많이 사용하며 세 번째

6) 李學勤, 「新整理清華簡六種概述」, 『文物』 2012年 第8期, 北京, 文物出版社, 2012年, 66~71쪽.

7) 趙平安, 「『芮良夫毖』初讀」, 『文物』 2012年 第8期, 北京, 文物出版社, 2012年, 77~80쪽.

8) 姚小鷗, 「清華大學藏戰國竹簡·芮良夫毖·小序」研究」, 209號, 鄭州, 河南省社會科學院, 2014年 5月, 145~147쪽.

9) 馬楠, 「『芮良夫毖』與文獻相類文句分析及補釋」, 『深圳大學學報』(人文社科版) 2013年 1期, 深圳, 深圳大學, 2013年 1月, 76~78쪽.

로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훈계 혹은 간언하기 위해서 형식화된 언어와 성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다. 이 특징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일반적인 시가와 다른 차별화된 ‘恣’ 형식을 완성했다고 보았다.¹⁰⁾ 자오지엔구어(曹建國)도 『詩經』류 문헌으로 구분했으나 이 문헌은 서주시기 인물의 이름을 빌어 전국시대 인물이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즉, 자신의 생각을 고대 성인 또는 유명 인사의 권위를 빌려 피력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간주했다.¹¹⁾ 리우쯔쩐(劉子珍)·왕시양화(王向華)는 『詩經』 중에서도 음악성이 배제되고 비판 정신이 투영된 “變雅”류 작품으로 구분했다. 여기서 말하는 “變雅”는 단순히 재재와 내용을 비판과 풍자의 관점으로 바꾼 ‘雅’가 아니라 하늘을 경외하고 선조의 공업을 숭상하던 서주 시대 초기로 돌아가려는 염원을 담았다고 했다.¹²⁾ 이연주·장총리(張崇禮)는 『芮良夫恣』를 『尙書』와 『詩經』 어느 한 편으로 구분하지 않았으나 전편(全篇)을 詩歌 형식으로 해석했다.¹³⁾

이와 같이 “서(序)”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1~2호간의 도입부와 본문에 해당하는 두 편의 시는 전래본 『尙書』와 『詩經』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예량부가 지은 두 편의 시는 형식상 『詩經』에 속하는 ‘恣’에 해당한다. 하지만 ‘恣’의 논지는 『尙書』에서 강조하는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결국 ‘恣’의 본질을 『尙書』와 『詩經』 중 어느 한 편에 귀속시킬 것인가에 따라 『芮良夫恣』의 성격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10) 馬芳, 「從清華簡『芮良夫恣』看“恣”詩及其體式特點」, 『江海學刊』2015年4期, 南京, 江蘇省社會科學院, 2015年8月, 190~195쪽.

11) 曹建國, 「清華簡『芮良夫恣』試論」, 『復旦學報』(社會科學版)2016年第1期, 上海, 復旦大學, 2016年1月.

12) 劉子珍·王向華, 「“變雅”及清華簡『芮良夫恣』所見怨刺精神探源」, 『宜春學院學報』2016年8期, 宜春, 宜春學院, 2016年8月, 98~101쪽.

13) 이연주·張崇禮, 「清華簡『芮良夫恣』주해(상)」, 『중국학논총』51권, 서울,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6年2月, 147~175쪽; 이연주·張崇禮, 「清華簡『芮良夫恣』주해(하)」, 『중국학논총』52권, 서울,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6年6月, 145~171쪽.

3. 清華簡『芮良夫毖』의 형식과 내용의 특징

1) 전래문헌 비교를 통한 ‘毖’의 표현상 특징

『예량부비』 원문에서 전래문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를 지닌 구절을 찾아 비교해보고 ‘毖’에 사용된 어휘나 표현상의 특징을 확인해보도록 한다.

號簡	『芮良夫毖』 원문	전래문헌 관련 구절	전래문헌 출처
2	敬之哉君子!天猷畏矣. 敬哉君子	敬哉有士 凡百君子, 各敬爾身. 胡不相畏? 不畏于天?	『尚書』「皋陶謨」 『詩經』「雨無正」
3	恭天之威	敬天之休 天畏棗忱, 民情大可見. 小人難保, 往盡乃心.	『尚書』「洛誥」 『尚書』「康誥」
5	尙桓桓	尙桓桓	『尚書』「牧誓」
	顧彼後復 所而弗敬	是顧是復 爾所弗勛	『詩經』「桑柔」 『尚書』「牧誓」
6	畏天之降災	弗弔天降喪于殷 大降喪于殷 天降喪亂, 滅我立王	『尚書』「君奭」 『尚書』「多士」 『詩經』「桑柔」
	邇邦之不滅	邦之不滅, 惟予一人有佚罰	『尚書』「盤庚」
7	而無有紀綱	無有比德 『夏書』曰, “惟彼陶唐, 帥彼天常, 有此冀方. 今失其行, 亂其紀綱, 乃滅而亡.”	『尚書』「洪範」 『左傳』「哀公六」
	此德刑不齊	德刑不立	『左傳』「成公七」
	民用憂惕	民用僭忒 我民用大亂喪德	『尚書』「洪範」 『尚書』「酒誥」
8	彼人不敬, 不鑒于夏商	我不可不鑒于有夏, 亦不可不鑒于有殷 殷鑒不遠, 在夏后之世	『尚書』「召誥」 『詩經』「蕩」
	心之憂矣, 靡所告懷	心之憂矣, 其誰知之. 心之憂矣, 不可弭忘. 心之憂矣, 云如之何.	『詩經』「園有桃」 『詩經』「沔水」 『詩經』「小弁」
	及爾盡臣, 胥收胥由,	無胥伐, 無胥虐	『尚書』「梓材」

9	胥穀胥均	朋友已讎, 不胥以穀	『詩經』「桑柔」
10	各尙爾德	各恭爾事	『尚書』「盤庚」
	寇戎方晉	寇戎數起 寇戎來征	『逸周書』「時訓解」 『禮記』「月令」
	或因斬柯, 不遠其則	伐柯伐柯, 其則不遠	『詩經』「伐柯」
12	昔在先王	昔在先王	『逸周書』「祭公」
13	先君以多功	先君以是除亂克敵	『國語』「楚語」
14	用有聖政德	政德既成, 又聽于民	『國語』「晉語」
16	莫好安情, 于何有靜	慈和而後能安靖其國家	『左傳』「襄公二七」
17	邦用不寧	家用不寧	『尚書』「洪範」
18	恭監享祀	春秋匪解, 享祀不忒	『詩經』「閟宮」
	天之所壞, 莫之能支, 天之所支, 亦不可壞	天之所支, 不可壞也. 其所壞, 亦不可支也.	『國語』「楚語」
21	惟四方所祗畏	四方之民罔不祗畏	『尚書』「金縢」
22	罔肯獻言	獻言在于王所	『逸周書』「皇門」
	其罰時當, 其德刑宜利	克明德慎罰 罔不明德慎罰, 亦克用勸	『尚書』「康誥」 『尚書』「多方」
23	日月星辰, 用交亂進退, 而莫得其次	日月星辰之行多以不當	『呂氏春秋』「先識」
24	咎何其如台哉!	夏罪其如台	『尚書』「湯誓」
	民靡戾盡	民靡有黎, 具禍以燼	『詩經』「桑柔」
27	吾中心念絀, 莫我或聽	圭璧既卒, 寧莫我聽	『詩經』「雲漢」

이상의 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芮良夫嗚』에 쓰인 표현은 주로 『尚書』, 『逸周書』 등의 문헌과 비슷하다. 운문체로 구성된 『詩經』에서 개인의 감정 표현 위주로 지어진 “國風”에 속한 작품은 「伐柯」 뿐이다. 나머지는 역사 기술이나 교훈적 내용을 담은 “아(雅)”, “송(頌)”에 속한 작품들이다. 유사 구절을 통해 본 ‘嗚’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분과 계급에 맞는 의무 사항을 강조한다. 『芮良夫嗚』는 주로 통치자가 해야 할 의무들을 강조하는데 첫 시작부터 “敬之”를 언급한다. 그리고 “하늘(天)”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尚書』와 『詩經』의 “아(雅)”와 “송(頌)”에도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둘째,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전달하는 내용으로 상급자의 행동과 언행을 바로잡기 위해 하늘의 권위와 역사를 빌어 하급자의 의도를 전달한다. 위의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芮良夫毖』 3, 6, 8, 12, 13, 18, 23호간에 관련 내용이 있다.

셋째, ‘毖’가 주로 역사 기술과 교훈적 내용을 반영한 시가 형식이나 부분적으로 사적인 감정을 토로하기도 한다. 8호간 “心之憂矣，靡所告懷”와 비슷한 내용을 “소아(小雅)” 뿐만 아니라 “국풍(國風)”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詩經』 「園有桃」 “心之憂矣，其誰知之。”는 8호간과 맥락상 일치한다. 27호간 “吾中心念絀，莫我或聽” 역시 사적인 감정을 토로한 부분이다.

넷째, 표현 수법은 비(比), 부(賦), 흥(興)을 고루 사용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부(賦)”를 사용했다. 화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비유를 통하지 않고 직접 얘기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절마다 일정하게 운을 맞추려고 하지만 반복구나 후렴구가 없이 일정한 논지로 내용을 전개한다. 이는 『詩經』 중 “大雅”에 수록된 시들과 비슷한 수법이며 운문과 산문의 중간적 특징을 가진다. 비(比)는 2번에 걸쳐 나타나며 흥(興)은 사용하지 않았다.

2) 운문과 산문의 관점에서 본 ‘毖’

이렇듯 ‘毖’는 산문과 운문의 특징을 모두 가졌기 때문에 『芮良夫毖』 또한 문헌의 성격을 어느 한 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산문과 운문은 문학 분과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며 전래문헌 『尙書』, 『詩經』 역시 漢代 유교화 정책 이후 형성된 문헌이다. 따라서 ‘毖’로 구성된 『芮良夫毖』는 漢代 이전의 선진시기 서사 방식 관련 기록을 참고하면서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尙書』, 『詩經』이 유교화 정책의 중심 텍스트로 지정되기 이전인 선진시기에 산재했던 여러 가지 판본 형식과 편집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國語』 「周語上」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天子聽政，使公卿至於列士獻詩，瞽獻曲，史獻書，師箴，瞽賦，矇誦，百工諫，庶人傳語，近臣盡規，親戚補察，瞽史教誨，耆艾修之，然後王斟酌焉，是以事行而不悖。¹⁴⁾

14) 인용문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天子가 정치에 관하여 들을 때,三公과 九卿에서

군주와 신하간의 의사소통 및 간언에 쓰인 문장은 산문과 운문의 엄격한 구분이 없으며 경우에 따라 혼합 형태로도 나타난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尙書』에 수록된 “고(誥)” 이외에도 시(詩), 곡(曲), 잠(箴), 부(賦) 등의 다양한 운문으로도 군주와 소통하고 있다. 예랑부 또한 ‘恚’를 지어 간언한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 문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산문과 운문의 형식으로 볼 때 ‘恚’는 분명 운율을 가진 운문체이지만 내용은 개인적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역사 기술과 교훈을 담고 있다. 또한 『毛詩正義』의 공영달(孔穎達) 소(疏)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國史采衆詩時，明其好惡，令瞽矇歌之，其所無主，皆國史主之，令其可歌。¹⁵⁾

시를 채집하는 과정에서 악사(瞽矇)만이 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사관(國史) 역시 공동으로 시를 채집하고 선별한다. 『左傳』「襄公十四」에서 이들의 업무 분담과 관련한 구절이 있는데, “史爲書，瞽爲詩，工誦箴諫。”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工’은 기술자가 아니라 음악을 다루는 사람을 지칭한다.¹⁶⁾ “史”와 “工”은 명확하게 기록 업무와 음악을 전담하지만 “악사(瞽)”는 중간자적 성격을 가진다. 『周禮』「春官宗伯」에 “瞽矇”의 업무는 “掌播鼗祝墳簫管弦歌。諷誦詩，世奠系，鼓琴瑟。”로 명시되어 있다. “播鼗祝墳簫管弦”은 악기 연주에 해당하며 “歌”는 노래이다. “諷誦詩”는 시를 읊는 일이며, “世奠系”는 왕의 족보를 정리하는 작업인데, 선조의 업적과 덕행을 같이 언급하면서 군주에게 경계로 삼을 것을 권고한다.¹⁷⁾ 즉, “史”와 “工”

부터 上士에 이르기까지 詩를 지어 바치게 합니다. 즉, 악사(瞽(고), 소경, 악사)에게는 노래를 지어 바치게 하고, 太史[사관]에게는 역사적 사례를 기록한 책을 바치게 하며, 少師에게는 경계하는 말을 하게 하고[箴(잠)], 瞽(몽, 소경)人에게는 시를 읊조리게 하며, 矇(몽, 소경)人에게는 글을 암송하게 하고, 백관들에게는 자신이 느낀 바를 말하게 하며, 서민들에게는 말을 전하게 하여 듣고, 近臣들에게는 마음껏 직언할 수 있게 하며, 친척들에게는 과실과 시비를 살피게 하고, 太師와 太史에게는 가르침으로 깨우치게 하며, 원로 師傅에게는 그것들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15) 국사(國史)가 여러 시를 채집할 때, 그 좋고 나쁨을 밝혀 악사, 소경에게 노래하도록 명했으나 직접 주관하지 못하고 모두 국사가 주관하면서 노래할 수 있도록 명했다.

16) 『禮記正義』「樂記」, “師乙曰, 乙賤工也, 何足以問所宜? 請誦其所聞, 而吾子自執焉”에서 정현(鄭玄)은 “樂人稱工”이라고 설명했다.

17) 孫詒讓, 『周禮正義』「春官宗伯」, “杜子春云, ‘……小史主次序先王之世, 昭穆之繫, 述其德行. 瞽

의 일을 “瞽瞍”이 일정 부분 분담해서 관장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직무상 산문과 운문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瞽瞍”이 있는가 하면, 문헌 형태 또한 산문과 운문으로 구성된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명칭이 있다. 바로 “지(志)”이다. 허신(許慎)은 “詩, 志也.”로 풀이했을 정도로 이미 오래전부터 두 한자는 의미상 밀접한 관련이 있다.¹⁸⁾ 『左傳』「僖公二十七」에 “詩書, 義之府也.”라는 내용이 『國語』「晉語」에서는 “先王之法志, 德義之府也.”로 쓰여 있다. 여기에서 “법(法)”은 『左傳』의 ‘書’를, “지(志)”는 ‘詩’를 지칭한다. 이 외에도 “고서(古書)”나 “기록”을 뜻하는 경우도 많다. 『左傳』에서 “志有之”, “前志有之”등의 표현을 볼 수 있는데, ‘志’는 “전적”, “前志”는 “고서”를 뜻한다. 출토자료에도 이와 비슷한 용법이 있다. 清華簡『芮良夫毖』 죽간 뒤쪽에 편명(篇名)을 기입했다가 칼로 긁어 지운 흔적이 있다. 완벽하게 긁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周公之頌志”라는 필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芮良夫毖』와 함께 수록된 『周公之琴舞』의 원제(原題)일 것으로 추정한다. 이 자료는 “경비(敬毖)”라는 운문이 수록된 자료로 ‘毖’보다 더 엄격한 형식을 갖추었다. 한편 청화대학 소장 전국죽서 1권에 수록한 『周武王有疾周公所自以代王之志』는 전래본 『尙書』「金縢」과 동일한 내용이다. 따라서, 음악과 서사 기록의 중간자적 성격을 지닌 “瞽瞍”과 『詩經』, 『尙書』 관련 내용을 모두 수록할 수 있는 “지(志)”의 명칭을 보더라도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인 ‘毖’를 어느 한 편으로 귀속시킬 필요가 없다. ‘毖’는 漢代 이전까지 보편적으로 존재했던 문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尙書』와 『詩經』을 중심으로 본 『芮良夫毖』의 문헌 성격

그렇다면 『芮良夫毖』는 산문을 대표하는 『尙書』류인가? 운문을 대표하는 『詩經』류로 분류해야 하는가? 본고에서 제시한 『尙書』류 문헌과 『詩經』류 문헌은 전래본 『尙書』, 『詩經』과는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서 전래본 『尙書』, 『詩經』은 선진시기 『尙書』류 문헌과 『詩經』류 문헌을 토대로 후대인이 가공해낸 전적이다.

瞽主誦詩, 并誦世繫, 以戒勸人君也.”(中華書局, 1987年 12月, 1865쪽).

18) 許慎撰, 徐鉉校定, 『說文解字』(附檢字), 北京, 中華書局, 2004年 2月.

후대인이 의도적으로 변형을 가한 전래본에 선진 시기 자료를 귀속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尙書』류 문헌과 『詩經』류 문헌과 같은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우선, 『芮良夫毖』를 어느 한쪽에 귀속시키기에 앞서 『尙書』류 문헌의 핵심 개념인 ‘書’와 『詩經』류 문헌의 핵심 개념인 ‘詩’에 대해 살펴보고 『芮良夫毖』가 어느 쪽과 관련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漢書』「藝文志」에서 “古之王者，世有史官，君舉必書，所以慎言行，昭法式也。左史記言，右史記事，事爲春秋，言爲尙書。”라고 했다.¹⁹⁾ 郭店楚簡 『性自命出』에도 “詩，有爲爲之也。書，有爲言之也。禮樂，有爲舉之。”²⁰⁾와 같이 각 경전의 특징을 개괄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書’는 ‘言’과 연관시키고 있다. 바로 『尙書』의 본질을 ‘言’으로 인식한 내용이다. “말(言)” 중에서도 정사(政事)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 것이 ‘書’인데, 『荀子』「勸學」에서도 “書者，政事之紀也.”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정치 관련 발언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한 편의 문헌으로 구성된다. 전래본 『尙書』의 대표적인 문장 형식인 “주서(周書)”를 보면, 처음에 창작 동기와 배경이 제시되고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시작된다. 발언 내용은 주로 대의명분이나 역사적 사례를 제시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고 화자가 주요 논지를 밝힌다. 이 논지 속에 반드시 포함되는 항목이 있는데 바로 “하늘(天)”과 “덕형(德刑)”의 조화이다.

‘書’에서 언급하는 “하늘”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전래본 『尙書』 중 ‘天’이 많이 등장하는 편명은 「大誥」, 「召誥」, 「多士」, 「君奭」, 「多方」이다. 모두 성왕(成王) 시기에 집필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 편명은 모두 서주 초기에 은이 멸망하고 주나라가 건국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명분을 모두 하늘을 통해서 확보한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우위나 정치력의 문제가 아니라 고차원의 도덕성을 바탕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하늘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통치자에게만 통치

19) 한글 번역은 다음과 같다. “옛 왕은 대대로 사관이 있었는데 군주의 행동은 반드시 기록하였으므로 언행을 삼가고 법도와 의식을 명확히 했다. 左史는 말을 기록하고 右史는 사건을 기록했는데 사건은 『春秋』가 되고 말은 『尙書』가 되었다.”

20) “시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만든 것이다. 서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말로 한 것이다. 예와 악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동으로 한 것이다.”(荊門市博物館 編, 『郭店楚墓竹簡』, 北京, 文物出版社, 1998년, 179쪽).

권을 부여하며 그렇지 못한 통치자는 통치권을 박탈한다는 천명(天命) 사상을 통해서 은나라의 멸망은 불가피했음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된 『尙書』 문장은 다음과 같다.²¹⁾

- 『尙書』「大誥」: 天休于寧王, 興我小邦周. (하늘이 문왕을 가사히 여기 시어, 우리 주나라를 흥하게 하셨다.)
- 『尙書』「康誥」: 惟時怙冒, 聞于上帝, 帝休, 天乃大命文王, 殪戎殷. (이에 믿고 따르게 되어 상제에게도 알려졌는데 상제가 가사히 여겨 하늘이 이에 문왕에게 천명을 내리시고 은을 멸하셨다.)
- 『尙書』「召誥」: 皇天上帝, 改厥元子茲大國殷之命. 惟王受命, 無疆惟休. (황천상제가 원자와 대국 은나라의 명을 바꾸었다. 왕이 천명을 받은 것은 끝없이 아름답구나.)
- 『尙書』「召誥」: 天既遐終大邦殷之命, 茲殷多先哲王在天, 越厥後王后民, 茲服厥命. (하늘은 이미 큰 나라 은의 천명을 끊었습니다. 은의 수많은 선대 현군들은 하늘에 있으나 후대를 이은 왕과 백성이 그 천명을 행하였습니다.)
- 『尙書』「洛誥」: 公不敢不敬天之休, 來相宅, 其作周匹休. 公既定宅. (공께서도 하늘이 가사히 여겨주시는 것을 감히 공경하지 않을 수 없어 도읍지에 와서 조사하시고 주를 세워 가사히 여겨주시는 자격에 맞도록 하셨습니다. 공께서는 이미 살 곳을 정해주셨습니다.)

하늘은 도덕성을 지닌 통치자에게 은혜(休)를 내려 나라를 세우게 하고 그렇지 못한 통치자는 벌을 내렸다고 서술했다. 『芮良夫毖』 역시 이와 같은 “하늘”의 특징을 토대로 간언하는데 하늘과 관련된 언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호간: 天猶畏矣. (하늘은 경외롭습니다)
- 3호간: 恭天之威, 載聽民之由. (하늘의 위엄을 섬기고 백성의 도를 잘 들어야 합니다)
- 15호간: 天猷畏矣, 豫命無成. (하늘은 경외로우며 천명을 소홀히 하면

21) 본고에서 인용하는 전래본 『尙書』는 顧頡剛·劉起鈺의 『尙書校釋譯論』(北京, 中華書局, 2005年 4月)에서 인용했음을 밝혀둔다.

이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18호간~19호간: 天之所壞, 莫之能支. 天之所支, 亦不可壞. (하늘이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지키려고 하면 또한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21호간~22호간: 此惟天所建, 惟四方所祗畏. (하늘이 만들어 세워주기 때문에 사방에서 경외할 것입니다.)

『芮良夫毖』는 려왕 시기의 저작이므로 서주 말기에 해당한다. 서주 초기의 강력한 왕권이 사라지고 사회 기강이 문란해지는 시기이므로 하늘의 은혜보다는 벌과 재앙을 많이 언급한다. 신하가 군주에게 간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명분과 도리이므로 이를 하늘에 의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사 구조는 『尙書』와 동일하다.

또한 “덕형(德刑)”의 조화도 『尙書』에서 자주 등장하는 항목이다. 앞서 언급한 “하늘”은 “덕(德)”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덕(德)”의 유무에 따라 하늘은 복을 내리기도 하고 재앙이나 벌을 내린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덕(德)”은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이롭게 해주는 긍정적 의미가 아니라 하늘이 부여한 원칙과 도리에 부합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이며 그렇지 못할 때 수반되는 것이 바로 “형벌(刑罰)”이다. 따라서 군주는 하늘이 부여한 원칙과 도리가 무엇인지 항상 생각해야 하고 그에 따라 “덕행”과 “형벌”을 시행해야 한다. 이것이 “덕형(德刑)”의 조화이다. 이와 관련된 『尙書』 문장은 다음과 같다.

『尙書』「康誥」: 惟乃丕顯考文王, 克明德慎罰. (너의 크게 빛나시는 아버지 문왕이 능히 덕을 밝히시고 형벌을 신중히 집행하셨다.)

『尙書』「康誥」: 我時其惟殷先哲王德, 用康乂民作求. (나는 그래서 오직 은나라의 어진 왕의 덕으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尙書』「酒誥」: 弗惟德馨香祀, 登聞于天, 誕惟民怨, 庶群自酒, 腥聞在上. 故天降喪于殷, 罔愛于殷, 惟逸. (향기로운 덕으로 지내는 제사가 하늘로 알려진 것이 없다. 여러 무리들

이 술과 고기를 따르자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들만 하늘에 들렸다. 그러므로 하늘이 은나라에 멸망을 내리시고 은나라에 사랑을 없애신 것은 오직 방종 때문이다.)

『尙書』「召誥」: 王其德之用, 祈天永命. (왕께서는 하늘이 영원히 명을 내리시도록 기원하는데 그 덕을 쓰십니다.)

『尙書』「洛誥」: 公稱丕顯德, 以予小子揚文武烈, 奉答天命, 和恆四方民. (크고 밝은 덕을 드러내셔서 이 작은 사람에게 문왕과 무왕의 공업을 발양하게 해주셨고 천명을 받들어 보하시니 사방의 백성을 화목하고 변함없도록 하셨습니다.)

여러 편에서 등장하는 '德'은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선조의 덕을 그대로 계승하여 실천하고 이를 통해서 하늘의 천명을 유지하면서 사방의 백성을 안정시키는 점이 주요 속성이다. 또한 천명의 중요한 연결 고리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은 속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경우가 『尙書』「酒誥」의 내용인데, 술로 인해서 이와 같은 덕을 실천하지 못해 멸망한 은나라를 예로 들고 있다. 『芮良夫毖』에서도 '德'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한다. 『芮良夫毖』에 수록된 '毖' 두 편 중에서 두 번째 '毖'가 "明德愆罰"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다루고 있다.

7호간: 變改常術, 而無有紀綱. 此德刑不齊, 夫民用憂惕. (규칙과 법도를 바꾸면 기강이 없어집니다. 이로 인해 덕과 형벌이 정비되지 않아 백성이 근심하고 방탕해집니다.)

10호간: 毋害天常, 各當爾德. (하늘이 정한 도리를 해치지 말며 각자 그대들의 덕에 맞도록 하십시오.)

16호간: 不秉純德, 其度用失營. (순수한 덕을 가지지 못하면 그 계획은 잘못이 생기고 어지럽게 됩니다.)

19호간: 德刑愆愆, 民所妖誑. (덕과 형벌을 태만하게 다룬다면 백성은 요사스러운 방법으로 무리를 이룹니다.)

22호간: 曰其罰時當, 其德刑宜利. (가로되 벌이 때에 맞고 합당하면 덕과 형벌 모두 적당하며 이로울 수 있습니다.)

『芮良夫毖』는 '德'만을 언급하기보다 주로 德刑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尙

書』의 “明德慎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처럼 “하늘(天)”과 “덕형(德刑)”의 조화는 ‘書’의 주요한 내용이며, 전래본 『尙書』 외에도 清華簡『尹至』, 『傳說之命』과 같은 清華簡 『尙書』류 문헌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제로 다뤄진다. 따라서 ‘書’는 완전한 맥락을 갖춘 정사(政事) 관련 발언 및 훈계 내용을 수록한 문헌이다.

이에 반해, ‘詩’는 음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음악에 맞추어 읊어지는 내용이 기 때문에 형식을 중요시 한다. 이 형식은 다시 부(賦), 비(比), 흥(興)으로 대표되는 표현수법과 운율로 구분한다. 부(賦), 비(比), 흥(興)을 고루 활용해야하기 때문에 작자의 의지, 생각, 감정은 『尙書』류 문헌보다 함축적으로 표현하며 리듬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운율과 후렴구를 운용한다. 전래본 『詩經』에 나타난 운율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격구운(隔句韻)을 사용한다. 두 구절, 세 구절 단위로 운을 배치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 운율이 불규칙할 경우 운율이 없다고 간주한다. 또한 “孔子刪詩”로 대표되는 『詩經』류 문헌 형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요소는 “선택”이다. 편집자가 강조하려는 사항에 부합되는 시를 선택해서 수록한 것이 바로 『詩經』류 문헌이다. 이는 사마천의 『史記』「孔子世家」에서도 공자가 “중복하는 시를 삭제하고 예의(禮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간추렸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서 “韶, 武, 雅, 頌과 일치하도록 만들어 예악을 기술하고 왕도를 갖추게 되어 육예를 완성시킬 수 있었다”고 했다.²²⁾ 전래본 『詩經』 역시 『詩經』류 문헌의 성격을 그대로 계승하여 300여 편의 시를 풍(風), 아(雅), 송(頌)으로 분

22) 『史記』「孔子世家」: “古者詩三千餘篇, 及至孔子, 去其重, 取可施於禮義, 上采契后稷, 中述殷周之盛, 至幽厲之缺, 始於衽席, 故曰, 關雎之亂以爲風始, 鹿鳴爲小雅始, 文王爲大雅始, 清廟爲頌始. 三百五篇孔子皆弦歌之, 以求合韶武雅頌之音. 禮樂自此可得而述, 以備王道, 成六藝. (옛날에 시가 3천여편 있었으나 공자에 이르러 중복된 것은 없애고 예의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취하여 위로는 설과 후직의 시부터 중고 시대 은과 주의 번성함을 노래한 시와 유왕과 여왕의 몰락을 노래한 시까지 수집하였다. 남녀간의 사랑으로 시작하므로 가로되, 관저의 음악을 風의 시작으로 삼고 녹명이 小雅의 시작이며 문왕이 大雅의 시작이고 청묘가 頌의 시작이다. 삼백오편은 공자가 직접 연주하며 노래해본 후에 韶, 武, 雅, 頌의 음악과 합치하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예악이 여기부터 기술될 수 있었고 이것으로 왕도를 갖추게 되었으며 육예를 이룰 수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여부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다. 본고에서는 그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으며, “선택해서 수록”한 점을 주목하기로 한다.

류하고 그 성격에 맞게 작품을 분별해서 수록했다. 따라서 ‘詩’는 편집자의 논지에 맞는 작품을 선택해서 수록한 문헌이며 작품 사이의 맥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토대로 『芮良夫毖』의 구성 방식을 살펴보면, 『芮良夫毖』는 비록 두 편의 ‘毖’로 구성되어 있으나 작자는 두 편을 서로 일관된 맥락으로 연계시켜 본론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는 시대를 불문하고 적용해야 하는 대의명분과 역사적 사례들을 소개하며 두 번째는 그 중에서도 덕과 형벌을 중심으로 국가 체제 안정을 위한 세부적 실천 사항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구조는 『尙書』 “周書”에 수록된 여러 “誥”와 유사하다. 그리고 본론이 시작하기 앞서 배경과 창작 동기를 제시한 점 역시 『尙書』류 문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소개한 ‘毖’의 속성과 “시(詩)”와 “서(書)”의 특성으로 볼 때, 『芮良夫毖』는 『尙書』류 문헌에 속한다. 그렇지만 문체가 운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앞부분에 제시했던 『國語』 「周語上」의 인용문에 제시된 운문 형식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전래본 『尙書』의 문체에 대해 다시 고찰해볼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최근 지속적으로 공개된 전국시대 『尙書』류 문헌과 전래본 『尙書』의 비교를 통해 문자, 어휘 차이나 필사 과정상 발생한 오류 등이 밝혀지고 있다. 개별 문자나 어휘 등의 차이점 외에도 이제는 “문체”상의 차이점도 확인이 가능해졌다. ‘毖’는 운문과 산문의 중간적 특성을 지닌 문체이다. 전승 과정에서 운율을 배제하고 핵심 논지만을 살려 서술한다면 산문으로 이어질 수 있고, 운율을 좀 더 정교하게 배치한다면 운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산문 형식으로 기록된 전래본 『尙書』 또한 이전 형태가 ‘毖’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래본 『尙書』 「酒誥」의 “封，汝典聽朕毖，勿辯乃司民湎于酒。”²³⁾에서 ‘毖’는 단순한 명사로 풀이하면 “경계”, “교훈”이

23) 한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봉아! 너는 나의 교훈을 잘 듣도록 하여라. 너의 유사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백성들에 술에 빠질 것이다.”

다. 하지만 문체의 관점에서 운문과 산문의 중간적 성격의 'ㄷ'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가설이 합당하다면 「酒誥」의 원시 형태는 『芮良夫ㄷ』와 같이 운문으로 구성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래본 『尙書』 29편 중 운문은 없으며 운율을 갖춘 『尙書』류 문헌은 僞古文『尙書』의 『五子之歌』뿐이었다. 하지만 僞古文『尙書』의 제작 배경이나 진위 여부에 문체가 많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芮良夫ㄷ』가 알려지면서 『尙書』류 문헌 문체를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본고는 淸華簡 『芮良夫ㄷ』를 통해 『尙書』류 문헌의 문체만을 국한시켜 살펴보았다. 『芮良夫ㄷ』 외에 운문을 수록한 淸華簡 『耆夜』, 『周公之琴舞』까지 모두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선진시기 운문이 선진 시기 이후 『尙書』류 문헌과 『詩經』류 문헌의 문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포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는 차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

〈參考文獻〉

- 荊門市博物館 編, 『郭店楚墓竹簡』, 北京, 文物出版社, 1998年 5月.
淸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 『淸華大學藏戰國竹簡』(壹), 上海, 中西書局, 2010年 12月.
淸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 『淸華大學藏戰國竹簡』(參), 上海, 中西書局, 2012年 12月.
上海古籍出版社, 『十三經注疏』,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7年 7月.
許慎撰, 徐鉉校定, 『說文解字』(附檢字), 北京, 中華書局, 2004年 2月.
顧頡剛·劉起鈞, 『尙書校釋譯論』, 北京, 中華書局, 2005年 4月.
劉起鈞, 『尙書學史』(訂補修訂本), 北京, 中華書局, 2017年 1月.
孫詒讓, 『周禮正義』, 北京, 中華書局, 1987年 12月.
楊伯峻, 『春秋左傳注』, 北京, 中華書局, 1981年 3月.
李零, 『簡帛古書與學術源流』, 北京, 三聯書店, 2004年 4月.
趙平安, 『『芮良夫諺』初讀』, 『文物』 2012年 第8期, 北京, 文物出版社, 2012年.
高中華·姚小鷗, 『論淸華簡『芮良夫ㄷ』的文本性質』, 『中州學刊』 229號, 鄭州, 河南省社

- 會科學院, 2016年.
- 李學勤, 「新整理清華簡六種概述」, 『文物』2012年 第8期, 北京, 文物出版社, 2012年.
- 姚小鷗, 「『清華大學藏戰國竹簡·芮良夫毖·小序』研究」, 209號, 鄭州, 河南省社會科學院, 2014年.
- 馬楠, 「『芮良夫毖』與文獻相類文句分析及補釋」, 『深圳大學學報』(人文社科版) 2013年 1期, 深圳, 深圳大學, 2013年.
- 馬芳, 「從清華簡『芮良夫毖』看“毖”詩及其體式特點」, 『江海學刊』2015年 4期, 南京, 江蘇省社會科學院, 2015年.
- 曹建國, 「清華簡『芮良夫毖』試論」, 『復旦學報』(社會科學版) 2016年 第1期, 上海, 復旦大學, 2016年 1月.
- 劉子珍·王向華, 「“變雅”及清華簡『芮良夫毖』所見怨刺精神探源」, 『宜春學院學報』2016年 8期, 宜春, 宜春學院, 2016年.
- 이연주·張崇禮, 「清華簡『芮良夫毖』주해(상)」, 『중국학논총』 51권, 서울,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6年.
- 이연주·張崇禮, 「清華簡『芮良夫毖』주해(하)」, 『중국학논총』 52권, 서울,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6年.
- 方建軍, 「新出芮國樂器及其意義」, 『音樂研究』2008年 第4期, 北京, 人民音樂出版社, 2008年.

〈Abstract〉

A Study on the Documentary Value of “*Rui Liang FU Bi*”
of Tsinghua Bamboo Slips

Kim, Jung-Nam

Based on prose and verse, most of the excavated documents discovered since the 1970s consisted of prose. Unusually, there are some materials composed of verse among the recently excavated materials. It consists of a part of the material in the form of a verse, or the whole of the material consists only of poetry. Although many opinio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nature of such materials, they are regarded as the primitive form of the “*Shijing*” written after the Han Dynasty.

Among them, “*Rui Liang FU Bi*” of Tsinghua Bamboo Slips has a difference in form with the poetry in the “*Shijing*”. The rhyme and refrain are not strict and emphasize moral duty and practice rather than personal emotional portrayal. The form is strong in the nature of the poetical style, but the content is similar to “*zhougao*(周诰)” of “*Shangshu*”. In the standard of verse and prose, it is difficult to belong to one side and it should be defined as ‘*姿*’ which is the middle form. The “*Shangshu*” emphasizes “sky” and the harmony of “morals” and “punishment”. And the “*Shijing*” emphasizes “form” and “choice”. On this basis, “*Rui Liang FU Bi*” of Tsinghua Bamboo Slips is related to the “*Shangshu*”. Unlike other excavated materials, *ruiliangfubi* has significance in that it can track the differences and changes in style. According to the intention of the author, it became possible to find clues that the style changed from verse to prose or from prose to verse. Accurate research on this is necessary to analyze the excavated materials such as “*qiye*” of Tsinghua Bamboo Slips, “*zhougongzhiqinwu*” of Tsinghua Bamboo Slips,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analyze in a comprehensive way how the verse in the advanced period changed into the document compiled after the Han Dynasty.

Key words: “*Rui Liang FU Bi*” of Tsinghua Bamboo Slips, “*Shangshu*”, “*Shijing*”, the excavated documents, style

이 논문은 2018년 7월 16일에 접수되어 2018년 8월 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8년 8월 1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